

■ 새로운 시대의 건축가의 역할

1. 건축과 건축가

건축가들은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한다. 사회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거의 공통으로 실감하고 있으며 무엇이 건축가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가를 고민하고 있다.¹⁾ 우리나라는 서양이나 일본과 달리 근대화의 역사가 짧고, 그나마 20세기초부터 중반까지의 일본 강점시대와 해방후의 전쟁, 수복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축가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기가 어려웠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의 이상형으로 서구의 '아키텍트(architect)' 상을 지향하였으나 아직도 그 직능(profession)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건축가'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직능은 무엇일 까라는 문제는 또 다르다. 옛날과 달리 건축생산의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농경사회 때의 생산방법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계와 전자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이루어 내는 시스템도 혼용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건축설계 시스템이 등장하면

서, 건축생산체제도 부분적이거나 바뀌고 있다.

도시환경과 건축문화 (2)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 21세기를 대비한 한국도시의 발전방향 -

黃鏞周/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o

1.1 통념으로서의 건축가

건축행위는 건축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하지만, 건축가가 하는 일을 건축행위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짚어 보기로 하자.

가. 법제의 정의

우리 나라의 법제에는 '건축가'²⁾라는 말이 없고 '건축사'라는 말을 쓰고 있다. 건축가와 건축사의 구분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의해 그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는 국가의 면허를 받은 건축전문가에 국한한다. 국가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건축 전문가에 대해 면허를 부여하고, 이들만이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건축사법 12조)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한편 넓은 의미의 '건축가'는 건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전체를 총칭하는 집합명사 내지 보통명사로 쓰인다.

그러므로 「건축사법」에 의거한 건축사와 건축 전공 건축사보 뿐

1) 大江 히로시, 建築概論, 新建築學大系, 3쪽

2) 건축가(architect), 직능적으로 자격이 있고 정당한 면허를 가진 개인 혹은 조직이 건축서비스를 수행 하도록 법적으로 부여하는 명칭(AIA Architect's Handbook).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registered architect)와 구분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의미(협의)의 건축가로 통일함.

아니라, 아직 연수가 부족하여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신진 건축전문가, 연수와 경력은 충분하나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건축 전문가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 문화재라든가, 철도 및 궤도 관련시설을 설계하는 건축사 이외의 건축전문가들도 해당된다.

이들의 종사 영역은 설계사무소 뿐 아니라 시공회사, 학교, 연구소 등 상당히 광범하다.

3) 그러나 국내에는 「한국건축가협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건축가라 함은 좁은 뜻의 건축가이다. 우선 건축사 면허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영역은 대체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건축 설계에 종사하는 건축전문가로서, 설계 역량이 뛰어나고 설계 업적이 우수한 소수에 국한한다.

나. architect의 어원

architect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apxltē ktwu(architekton)이라는 말에서 비롯하는데, 으뜸, 우두머리(chief), 숙련(master)을 뜻하는 apxl-(archi-)라는 말과, 목수, 공인(工人), 작업자를 뜻하는 te' ktwu(tekton)이라는 말이 모여서 이루어진 말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풀이 하면 '공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architecture를 라틴어에서는 architrectura라고 하였다.

1) 건축의 과학, 예술 또는 전문업, 2) 한 건물 또는 건물의 총칭, 3) 설계와 시공, 4) 어느 것이라도 무관하게 어떤 틀을 짜는 체계 등을 가리킨다. 현대에 있어 architect의 사전적 의미는 좁은 뜻으로는 건물을 짓거나, 설계를 하거나 시공감독을 하는 전문가만을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는 조선전문가를 naval architect, 조경전문가를 Landscape architect 라고 하듯 비슷한 분야의 설계가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넓은 뜻으로는 대상과는 관계없이 건설을 하거나 창조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어원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architect와 건축가는 그 뜻이 같지 않다. 즉 '건축가'라는 말은 협의의 architect에 한정된다.

2) architecture는 건축행위 및 건물 모두를 가리킨다. 우리 말에서도 '건축'이 건물을 뜻하기도 하므로 유사한 점이 보인다.

1.2 건축가의 생존?

최근 미국의 건축잡지에 실린 '건축가라는 직업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기사에 의하면 지난 1989년 이후 비주거용 건축의 건설이 31퍼센트 줄었고, 건축에 관련된 고용도 24퍼센트가 줄었다고 한다. 좋지 않은 경제상

황 아래 전산 처리로 생산성은 향상되고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건축주의 기반은 약해지면서 인테리어디자이너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들까지 건축가의 설계 영역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할 정도라는 것이다.³⁾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시공자에게 조금씩 역할을 나누며 총괄적인 지휘를 맡던 건축가의 위치는 이제 수없이 많은 건설코디네이터(construction coordinators)중의 하나로 전락해 버리고, 이제 위기에 직면한 건축가들은 회의와 갈등속에서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설계 전문가의 역할은 이제 전자테크놀로지와 전문가 시스템으로 도전 받는 정보화사회에서 그 모양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구의 근대화 사회에서 법률, 의학, 신학, 교육 건축 등을 다루는 직업을 일컬어 일반적인 의미 'occupation', 'job' 과 구별하여 'profession'이라 했다. 흔히 건축가의 직능을 변호사와 의사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건축가의 위상은 어떤가? 과연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직능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미 1857년에 건축가협회(AIA)가 창립되면서 건축가의 직능이 사회적으로 성립되어 활동의 역사가 오랜 미국의 경우와 우리와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그 바탕에 흐르는 근본개념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세기 초에 의사가 개개인의 환자를 뒷바라지하는 일반 개업의(開業醫) 체제에서 최신의 리서치를 통하여 의술을 베푸는 고소득 전문의(專門醫)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였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지금의 건축업계는 고소득의 '일반직' 파트너와 수입도 적고 고객의 눈에 별로 띄지도 않는 '전문직' 고용인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의료업계의 예를 따라 건축(설계)업계가 재편성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설계, 기술, 관리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 팀을 모아 기존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일반적인 개업건축가로 일하게 되고, 반면에 어떤 건축가들은 일반의던 전문의던 독립 개업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가는 정기적으로 건물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며, 안전상태 (building health)를 파악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숫자에 있어서도 새로 짓는 건물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건물 진단 업무는 지금처럼 별 볼일 없는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건축활동

3) 'Can this profession be savded?', Progressive Architecture 9402, 45쪽

과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될 지도 모른다. 건축가의 영업시장도 건물을 복원하거나 새로 짓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어지게 된다.

전문건축가들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와 기술개발에 몰두하게 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지식을 축적해 나가며, 사회적으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 생산팀 중에서도 상위 소득층에 속하게 될 것이다.⁴⁾

1.3 변하는 시대의 건축가

앞의 기사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건축가들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옛날의 이미지만을 고수하며 눌러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여러가지 분야에 대하여 제 역할과 기능을 찾는다고 무턱대고 자기 주장만 하거나 단체나 조직의 물리적인 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건축가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⁵⁾

하나는 건축가라는 존재를 없애려는 외적조건의 변화다. 현대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정치, 경제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 상황이 바뀌므로 더욱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과학과 기술의 괄목할 만한 진보는 그 이전 몇 천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겨지면서 유전자공학, 전자테크놀로지가 바꾸어 놓은 사회와 환경변화는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사이클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는 이제 개인의 정보장치가 된지 오래고, 팩시밀리와 이동통신은 인간과 사회의 거리, 인간과 인간의 거리 뿐 아니라 시간 개념조차 뒤 흔드는 혁신적인 수단이 되어 버렸다. 정보라는 허구(fiction)가 지배하는 도시의 모습은 편의점(convenience shop)처럼 24시간 움직이는 현대의 도시풍경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국토가 개발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건축주로 등장하게 되고, 건축가 역시 사회가 변하는 거센 물결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인다. 개발의 규모가 커지고 빨라짐에 따라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수행해야 할 업무도 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확장되어 있다. 개발업자들은 드디어 분양책임을 전제로 하거나, 재개발의 경우처럼 자본동원까지도 요구될 정도로 설계시장이

장사속으로 변해 가는 것도 큰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처럼 업무상의 실수나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될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

다음은 건축자체의 변화이다. 물론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건축을 만드는 방법의 변화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다. 주변에 흔한 나무, 흙, 돌과 같은 자연원료를 이용하여 집을 짓던 산업사회 이전의 건축생산방식은 콘크리트, 철, 유리와 같은 새로운 소재와 공장생산품의 발명과 함께 내용, 규모, 기능에서 크게 바뀌어 대규모 건축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기능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공장, 아파트, 백화점, 스포츠, 오락 시설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 생겨나고, 폭등하는 도심지의 땅값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지이용의 효율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초고층화, 여러 기능을 한데 묶어 구성하는 복합화(complex), 단지화(團地化)하는 현상도 늘어나고, 진보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intellegent building system)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건축 시스템을 근대이전처럼 한 건축가의 손에서 종합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다.

건설환경에서 각각의 영역은 점점 더 전문화 추세이고 자연히 전문영역이 모여 협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건축생산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설계 조직도 따라서 대형화되는 움직임이 강하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규모 조직의 건축가들은 우선 전문 종합집단으로서의 대규모 조직과 경쟁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management)업무도 그 시간에 많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해야 할 건축가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페션, 즉 의사와 변호사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문제이다.

2. 건축과 문화

서구의 역사를 통한 관점이지는하지만 건축물(architecture)과 건물(building)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은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다. 건축물이 실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때 그 기준에 따라 정리된 것이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척도, 미적인 관점,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따라 그 가치를 재는 틀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에

4) 같은 책, 46쪽, 49쪽

5) 앞의 책, 大江 히로시, 4쪽

따라 '건축물' 혹은 '건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축'은 사회의 가치기준을 반영하는 대상이 되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건축가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창조하는 직능으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건축이 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근대시민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개척으로 건축가의 통솔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갔다.⁶⁾

2.1 서구에서의 건축가의 위상

가. 도시계획가 겸 건축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은 대체로 건축가의 작업의 연장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건축물, 가로, 광장의 집합, 즉 전체 도시로서 구성되는 대규모 건축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전에는 도시계획이 주로 건축가의 작업이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그렇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히포다무스(Hippodamus)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도시계획가로서 도시 7개의 계획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건축가인 것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는 건축가이기 보다는 정치가이자 사회학자인 것으로 자리매김된다.

중세에는 도시계획이 주로 방어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공병기술자들의 작품이다. 프랑스의 상루이스나 영국의 에드워드 1세에 의해 건설된 성채 도시들은 아마도 계획에 능통한 공병기술자들이 설계하였을 것이다. 또 중세의 도시계획은 교회가 주관하였거나, 근교의 도시의 일부분을 이루는 수도원 건물의 레이아웃을 결정한 수도사의 작품이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기간중에는 예술가들은 화가, 조각가이자 건축가이므로 도시계획은 그들의 업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초기 사례로서 든다면 14세기 중엽 오르카냐(Orcagna)는 피렌체의 피아짜 델라 시뇨리아(Piazza della Signoria)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그것이 채택된 것이다.

가장 유명한 예는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설계한 캄피돌리오(Campidoglio)광장이다. 그후는 베르니니(Brenini)의 성 베드로 성당의 열주로 둘러싸인 원형광장이다. 건축가가 그의 작업을 연장하여 도시계획을 책임을 지는 이러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통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모든 중요한 도시계획안은 유럽과 미국 건축가들의 작품이다.

19세기 중에는 계획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증가하면

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도시계획가라는 뚜렷이 구별되는 전문업이 나타났다. 많은 나라에서 도시계획은 아직도 주로, 또는 전적으로 도시계획의 훈련을 받은 건축가들의 작품이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도시계획가가 뚜렷한 전문업으로서 분리되어 있지만 많은 기관이나 발주자들은 아직도 건축가를 겸한 계획가를 선호한다.

그러나 계획의 복잡한 활동은 많은 전문가들의 종합작품이므로 한 팀의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우두머리는 건축가 겸 계획가이다. 이점은 건축가의 전통적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적 가치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하는 사람은 건축가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나. 문화창조자로서의 건축가

문화라는 말은 대단히 모호하면서도 매력이 있는 말로서, 그 정의가 수백 가지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집약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지식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하는 것에 국한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의 바탕에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 즉 인간은 동물과도 비교되고 신과도 비교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종의 동물과 비교했을 때에 뚜렷이 구별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뛰어난다는 특징(秀越性: excellency)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절대적 완벽성(perfection)에 접근해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욕구를 나타내는 심리적 상황(철학, 종교 등)이라든가, 또는 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 전체가 지적으로 발전한 성과(과학, 기술 등)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흥을 잘 표현한 것(예술 등)을 가리켜 문화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인간이 영위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일부분만 문화로 본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잣대로 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인간의 뛰어난 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계층·집단이 지니고 있는 가치만을 선택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통념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도에 의해 보호·육성되는 대상이 된다.

또 하나는 한 무리의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Way of life) 또는 '삶의 양식'(patterns of life)을 뭉뚱그려 문화라고 보는 인류학적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인간은 옷을 입고 살며, 집을 짓고 사는데, 이것을 모두 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6) 앞의 책, 大江 히로시, 8쪽

예쁜 옷, 편리한 옷 등과 같은 가치판단이 필요없다. 그저 그러한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므로 보편적이고 또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온다. 이 개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생활을 중시하며, 그래서 민주 사회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단점도 안고 있다.

그러면 건축가들은 어떤 문화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전자를 추구한다면 건축가는 분명히 예술가이거나, 예술적인 입장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건축물(architecture)에 있지 건물(building)에 있지 않다.

한편 후자를 추구하는 건축가는 "건축은 예술이다"라는 명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건물 조차도 건축물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한다.

2.2 착증된 건축문화

근세이전의 조선조까지 우리에게는 서구식의 건축가에 걸 맞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주로 목수(도목수)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유한 풍토나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치관과 규범이 그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성(identity)과 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라포포트가 '건축문화의 기원'에서 "문화는 일련의 가치와 믿음을 가진 일단의 대중에, 그리고 이상을 구현하는 하나의 세계관에 관련된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선택에 이르게 한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의 결과라는 언급에 비추어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에 가장 의도적인 변화를 포함한다는 디자인의 정의에 비추어, 건축은 어떤 정돈된 도식에 따라 물리적 환경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건조물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듯이 "환경은 그 집단의 중요하고 전형적인 것"이며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생활양식을 위한 장치물"이 되는 것이다.⁷⁾

그러나 일제 강점 이후 본격적으로 근대화 작업이 착수되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문화적 소산과 가치관은 하루 아침에 서구식의 국토개발 정책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시행된 토목중심의 국토개발은 비록 근대화-도시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국가적, 도시적 아이덴티티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전 국토가 획일적으로 개발되어 버린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후, 극도로 피폐한 국토의 수복과정에서 경

제 제일, 효율 제일에 편향된 개발목표로 인하여 건축의 문화적 가치는 크게 평가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 우리에게 건축문화, 도시문화가 존재하는가? 다음 세기를 이제 몇 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건축의 미래, 도시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문화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건축가의 직능을 통하여 사회가 공통으로 합의 도출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2.3 건축의 예술성

건축의 목표는 물질을 사용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일인데 건축의 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적 측면에서 그 활동의 장이 넓어짐에 따라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가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건축가는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정의한다. 그러나 오늘날 예술이란 극도로 다양, 다기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술 또한 분업화되어 있다. 실로 이 두 측면을 통합하는 사람으로서 건축가 상(像)은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이상상의 추구는 실현될 것인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꿈은 아닌가?

예술과 기술의 다양화, 다극화에 따라 이른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영역이 나누어진다. 디자이너는 독창적인 예술성과 상상력으로 형태와 공간을 구상하고, 엔지니어는 수학과 물리와 같은 학문과 지식을 수단으로 디자이너의 구상을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실현시키는 영역이다. 독창성(originality)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에 대치하는 디자이너의 안이한 예술성은 자의성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하고, 엔지니어가 전에 하던대로 기술적 처리범주에서 안주하려고 태도도 위험한 현실주의에 빠지기 쉽다.

건축은 감성의 산물이라고도 말한다. 건축의 실체를 통하여 치밀하게 계산되고 제어된 감성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때 문화로서의 위치와 가치가 정해진다. 건축의 예술성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문화로서 건축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정신적인 사고를 형태와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여 건축을 만들어 내는데 이 과정을 설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수행하는 작업을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아래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7) A. 라포포트, 건축문화의 기원,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윤일주 역, 23쪽